

비대면 시대의 한국어교육의 전망과 과제

김 지 형

경희사이버대학교 · 이중언어학회

jmh97@khcu.ac.kr

1. 머리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발한 COVID-19 팬데믹 현상이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변화를 겪어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영역 중의 하나가 교육 분야가 아닌가 한다.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면서 교육을 구성하는 '교사-학생-교재'의 전통적 관계의 틀이 바뀌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팬데믹 초기에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연수생을 받지 못했고, 기존의 연수생도 한동안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대학이 이랬으므로 다른 기관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했으나,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세종학당이나 한글학교와 같은 비정규 교육기관의 강좌도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대면 교육의 대체재(代替財)로서 거의 모든 학교의 수업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시행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교육 부재' 상황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온라인 수업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교육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교육 시행 자체보다 더 질 좋은 교육에 대한 논의로 화두가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보경(2020)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학습을 위한 필수적 환경과 도구로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외에도 온라인상의 학습에 대한 시수(학점) 인정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원의 역량 개발, 가정의 학습 지원 책임 강화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교육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본고에서는 '비대면(Un-tact) 시대'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전망해 보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2.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현황

2.1. 온라인 교육의 발전적 변화

전통적인 온라인 교육은 'e-learning'으로 불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며 자가(自家) 학습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위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대표되던 일방향 전달 방식의 교육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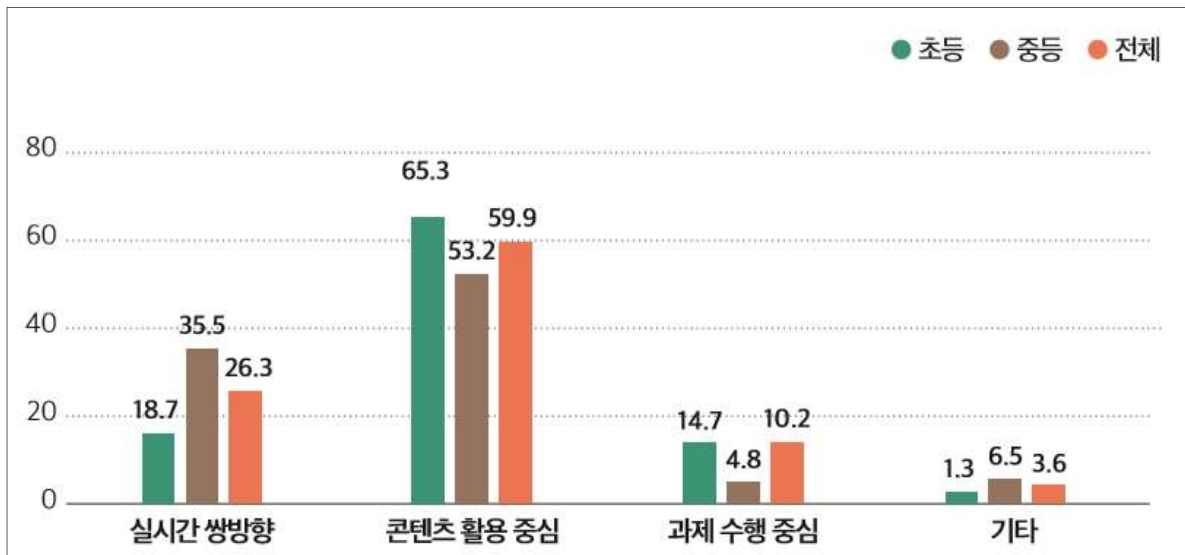
여기에서 '사이버대학'과 같이,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출석과 진도, 시험·평가, 성적 처리, 비실시간 학습 지도 및 학습자 상호간 토론 등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사이버대학에 대학원이 설치되면서 LMS에 화상 세미나 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수업도 본격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는 온라인 대학의 형태를 갖춘 교육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는 사전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비실시간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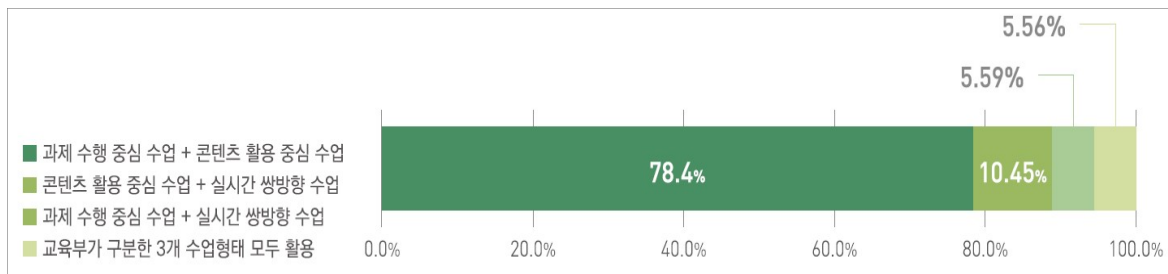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전면적인 비대면 교육이 필요해지자 온라인 교육의 수행 방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계보경(2020)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유형이 수행되었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강의와 활동형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그것이다.¹⁾ 학교 현장에서는 2개 이상의 혼합형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혼합 방식에서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혼합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그림 1).

<그림 1> 원격 수업 기간 진행된 수업 유형(단위 %)(계보경 2020)



<그림 2> 혼합형 원격 수업 형태(계보경 외 2020:28)



1)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가 화상 수업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수업이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수업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동영상이나 PPT, PDF, 한글/word 파일 등을 통해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이다.

그러나 자가 학습의 성격이 강한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으나 일반 학교에서는 이 수업 형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가?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교육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교사의 수업을 대체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나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는 간단(間斷)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한글 학교들이다(김지형 외 2021).

재미 한글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들이 편히 쓸 수 있고 학교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구글 클래스룸과 줌, 클래스팅 등 다양한 플랫폼을 시범 테스트해 보며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플랫폼을 찾아 교육을 시행한 학교가 많았다.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구글 클래스룸, 미트, 행아웃, 폼즈, 어젠다, 드라이브, 줌보드, 슬라이드 PPT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수업은 물론, 학생 등록, 학사일정 관리, 학교 문서 보관 등 거의 모든 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한지은 2021:57~66, 참조).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한 이후에는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교육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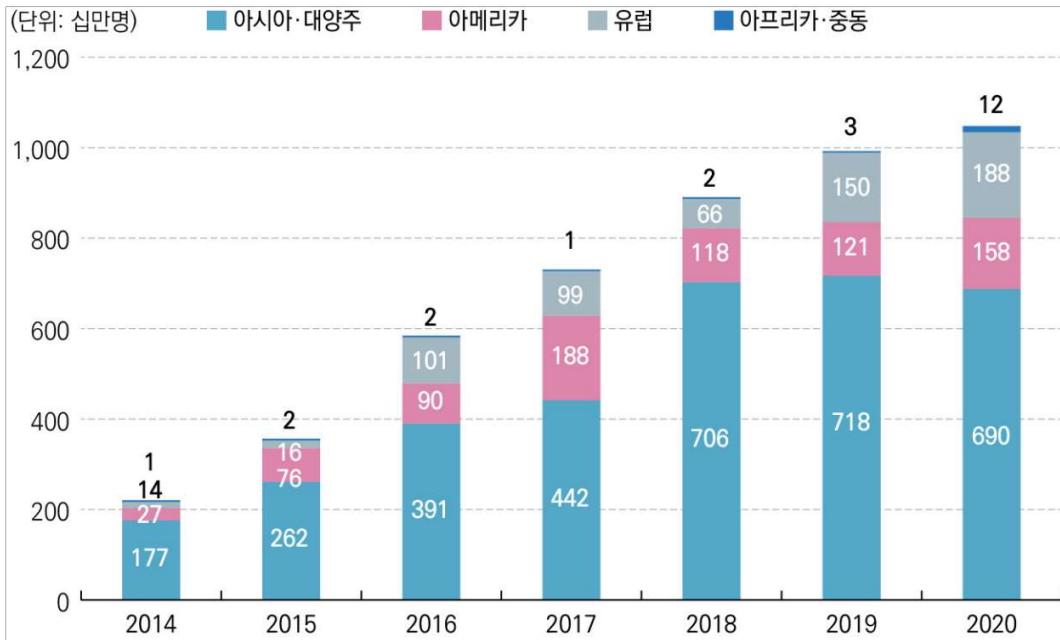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경험은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면대면 교육과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ICT 기술과 결합된 진화된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과 함께 다양한 융합 형태로 교육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2.2. 온라인 한국어교육의 확대 필요성

한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로 확산하는 원동력이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98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호회 등을 통하여 한류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그림 3).

근래 한류는 드라마, 영화, 케이팝 뿐 아니라 한식, 뷰티, 게임, 웹툰, **한국어**, 전통문화 등 그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며 약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20년은 한류가 갖고 있는 소프트파워의 힘을 여실히 드러낸 한 해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화 개봉이 무산되고 케이팝 콘서트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한류 성장의 위축이 염려됐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한류'는 더욱 진가를 발하며, 국가 브랜드 향상 뿐 아니라 공공외교 측면에서 강력한 자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었던 데는 충성도 높은 한류 동호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택트Untact 사회에서 한류 동호인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팬덤 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다(세계한류학회 2021:5, 강조 및 밑줄은 발표자).

<그림 3> 지역별 연간 한류 동호인 수 변화 추이



출처: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2020.12(한국국제교류재단), p.11

이러한 분석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한국어'가 한류의 한 분야로 언급된 점이다. 한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언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79)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음악의 영상 부문에서 '번역 자막/더빙 시청 불편', '어렵고 생소한 한국어', '자국어로 번역 미흡' 등이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의 경우, '한국어가 어렵고 생소'하다는 것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류 소비자들에게 '언어적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모든 비영어 콘텐츠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류 소비자들은 한국어를 한국 문화 콘텐츠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고 다른 문화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독자적인 개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글이 아닌 영어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한류 콘텐츠의 차별성과 개성을 잃게 됨. 따라서 다양한 양질의 자막과 번역, 더빙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언어 장벽을 낮추면서, 동시에 **한국어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언어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79. 강조 및 밑줄은 발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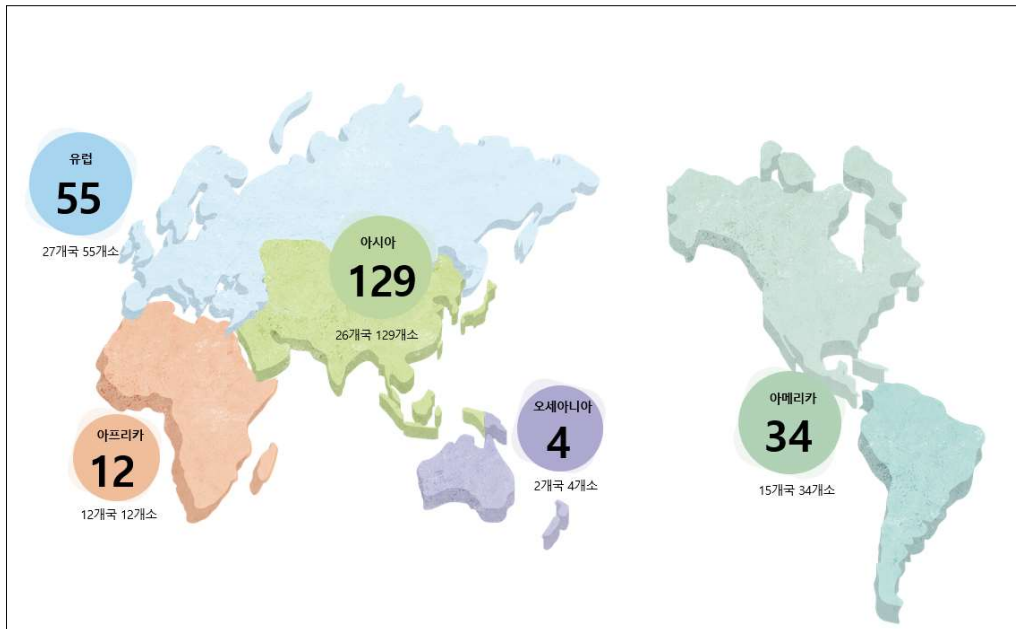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한류 소비자를 위한 한국어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한류의 한 분야로서 한국어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한국어 학습 자체가 한류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회(2021)에 따르면, 해외 한류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과 'TV', '영상물'이라고 한다.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TV 및 출판물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앱 등이고, 패션과 뷰티, 음식은 SNS 상의 영상과 사진, 한국 영상물이 주된 경로라고 한다. 이는 해외에서의 한류 소비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역시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온라인을 통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즉, 온라인을 통해 한류를

즐기면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 학습을 하나의 한류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이 한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그 자체로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한류로서의 한국어 확산의 중심, 세종학당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학당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세종학당은 정부의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브랜드 단일화 정책에 따라 국가 브랜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외 한국어 보급의 중심 기관이다.²⁾

<그림 4> 세종학당 지정 현황(82개국 234개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06.09.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된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이 희소한 지역에도 전략적으로 개설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출발한 세종학당은 2021년 6월 현재 모두 82개국 234개소를 설치하

2)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세종학당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원, 교육부의 한국교육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있다. 세종학당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 확산의 중추 기관으로서 '세종학당' 브랜드로서 통합하여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원은 재외 한국학교 지원과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보급 및 지원이라는 고유의 기능 이외에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하여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이라는,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의 한글학교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의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시행하는 KOICA 해외 봉사단에 한국어 교사를 포함하여 해외 각지에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에 이르렀는데, 14년 동안 1,800%에 이르는 급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간 13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서 해외의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 한국어 확산 정책이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만큼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전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종학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학습자의 폭발적 증가를 따라갈 수 없으며, 또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전문 한국어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양적 확장의 한계로 한국어교육의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 우수한 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종학당재단에서는 '누리-세종학당'을 통하여 다양한 온라인 한국어·한국 문화 콘텐츠와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1> 누리-세종학당 이용 현황(세종학당재단 자료)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	
				증감(B-A)	증감률(%)
누적 회원 수(명)	120,241	166,719	200,916	34,197	20.51%
방문자 수(명)	323,160	505,139	518,782	13,643	2.70%
접속 수(세션 수) (건)	793,363	926,295	971,684	45,389	4.90%
페이지뷰 수(건)	6,220,184	6,229,907	7,366,929	1,137,022	18.25%
접속 수 대비 페이지뷰 수	7.84	6.73	7.58	0.85	12.73%

'누리-세종학당'의 이용 현황을 보면, 매년 회원과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누리-세종학당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자가 학습(自家學習) 개념으로, 교사에게는 교수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오프라인 한국어 교실의 대안으로서 '누리-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히 증대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사'와 '학습자', '교재'로 구성되는 오프라인의 전통적 한국어 교실을 대체·보완할 온라인 한국어 교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초급과 중급 단계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20년에 '온라인 세종학당'을 구축, 실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온라인 교육운영지원팀'과 '해외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한 축으로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2.4. 온라인 세종학당의 운영

온라인 세종학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www.iksi.or.kr)이다.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은 크게 학습 관리형과 자가 학습형으로 구분하며, 학

습 관리형은 전문 한국어 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포함한 '강의 지원형' 과 비실시간 지도로 이루어지는 학습 지원형 수업이 있다. 모든 유형은 세종학당재단에서 제작한 한국어 입문 과정 ~ 중급 과정까지의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문 한국어 교사에 의한 실시간·비실시간 지도를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표 2>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 유형

과정 운영 유형		과정 운영 형태	과정 정원	운영 시수
학습 관리형	강의 지원형	온라인 콘텐츠 수강 + 과제 첨삭 + 질의 응대 + 실시간 화상 강의(주 1회) + 성취도 평가	최대 20명	10주
	학습 지원형	온라인 콘텐츠 수강 + 과제 첨삭 + 질의 응대	최대 100명	10주
자가 학습형		(자가학습) 온라인 콘텐츠 수강 + 과정 진도 관리	제한 없음	10주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오프라인 학당과 마찬가지로 '기본 교육과정'과 '특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 문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특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needs)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다.

<표 3>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예시	비고
기본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 사이버 한국어 입문 · 사이버 한국어 초급(1A, 1B) · 사이버 한국어 중급(2A, 2B)	총괄 본부, 권역별 온라인 세종학당 요청 시 개설 가능
	한국문화 교육과정	· 세종문화아카데미 · K-Wave 한국어(52단원)	
특별 교육과정		· 비즈니스 한국어	

온라인 세종학당은 2020년 시범 운영을 통해 그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세종학당 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세종학당 e-class)했으며,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을 통하여 대규모 학습자를 일시에 수용하여 해외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단순히 향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습을 통한 향유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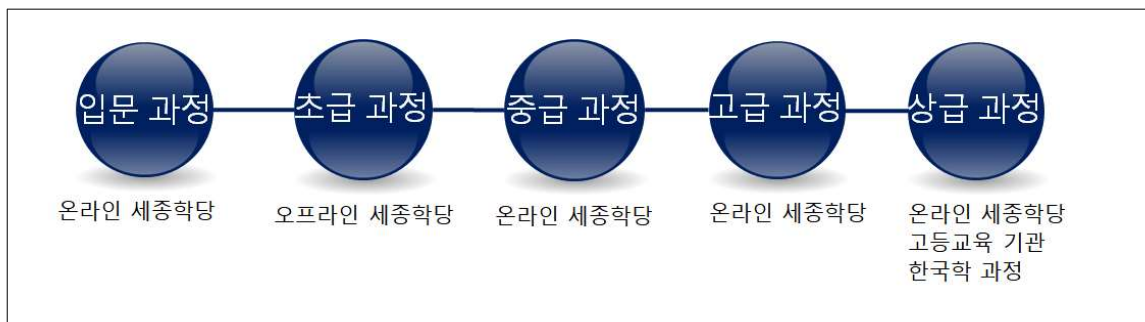
온라인 세종학당은 세계 각지에 산재한 오프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운영이 늘 안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이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층이 다양하지 못해 일정 단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학

습자가 소수여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온라인 세종학당 교육과정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우수한 한국어 교사의 확보가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정 단계의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학습자가 존재함에도 교사 부족으로 적합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을 온라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이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세종학당은 오프라인 세종학당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양 날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림 5>와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세종학당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한 것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할 모델로 가능한 것이다.

<그림 5> 온라인-오프라인 세종학당 연계 개념도



또한, 온라인 세종학당은 물리적·문화적 환경 때문에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해외 예비 학습자들에게 질 높은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랍권 여성 학습자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로 남성 학습자와 같은 공간에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온라인 세종학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의 부재로 한국어 학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세종학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온라인 세종학당은,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의 제약, 교육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학습자 규모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 세종학당 소재지와 원거리로 인한 학습 불가능 등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대규모 학습자를 제한 없이 수용할 수 있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환경의 변화

KOTRA(2020:14~20)에 따르면, 글로벌 교육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는 '새로운' 환경(Environment), 플랫폼(Platform), 기술(Technology) 등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먼저, '새로운 환경(New Environment)'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대면 교육 환경이 비대면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고, 비접촉식 인터페이스와 정보 솔루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플랫폼(New Platform)'은 비대면 환경에서 원격 교육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원격 교육 인프라 및 모바일 교육 시장의 확대 확대를 의미한다. 원격 교육을 뒷받침

해 주는 각종 인프라, 기자재, 소프트웨어 콘텐츠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이란 인공 지능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가상현실(VR)과 증강 현실(AR) 교육 콘텐츠가 '혼합 현실(Mixed Reality, MR)' 형태의 콘텐츠로 진화할 것이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흔히 ICT 융합 에듀테크(Edu-tech)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혼합 현실(MR) 교육, 게임 기반 교육, 인지 교육, 모바일 교육, 위치 기반 교육, 교육 로봇 등이 포함된다.

<표 4> 에듀테크 산업의 유형(KOTRA 2020:4)

교육 기술		주요 내용
전통적 방식	자가학습 이러닝 (Self-paced eLearning)	규격화된 콘텐츠, 설치용 학습관리 플랫폼·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
ICT 융합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 교육 (AI-Based Learning)	디지털 교육 콘텐츠 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개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혼합현실 교육 (Mixed Reality Learning)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기법으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보다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인 혼합현실(M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게임기반 교육 (Game-based learning)	게임기법을 사용한 교육방식으로, 자신 또는 타인과이 경쟁을 통한 '게임 플레이'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게임과 동일한 보상/패널티 시스템을 포함함
	인지 교육 (Cognitive learning)	통찰력, 기억력, 이해력, 공감능력,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수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모바일 교육 (Mobile learning)	교육 목적으로 모바일 장치를 통해 좁히는 지식 전달 이벤트, 콘텐츠,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
	위치기반 교육 (Location-Based Learning)	실제 공간정보와 AR, VR 등 가상공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로봇 (Educational Robot)	프로그래밍 교육 로봇, 인공지능 기반 로봇 등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실제로, COVID-19 상황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ZOOM 등의 실시간 화상 회의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서는 수업과 교사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들 수업과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 수업 도구(패드렛, 카훗, 퀴즈 등등)가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등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 등이 도입되어 비대면 교수-학습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환경 한국어교육을 위한 당면 과제

온라인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의 세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수시로 접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전문 한국어 교사와 쌍방향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즉, 온라인 교육

은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의 교실과 연계하여 해외 한국어교육 확대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단 한국어교육의 과제만은 아니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교재에 대한 이해부터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존재 이유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있다.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교육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Needs)를 충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놓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교재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할 때, 교육을 이루는 각 요소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스템적 사고에 어긋나고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시스템의 일부인 나(교수자와 학습자, 그 외 관련된 모든 교육 주체들)도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응하도록(adaptive) 변화해나가야 한다(이상민 · 한승연 2020:16).

4.1. 한국어 교사의 자질 강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비대면 시대,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교사의 온라인 교육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 에듀테크 수업 도구 활용 능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1.1.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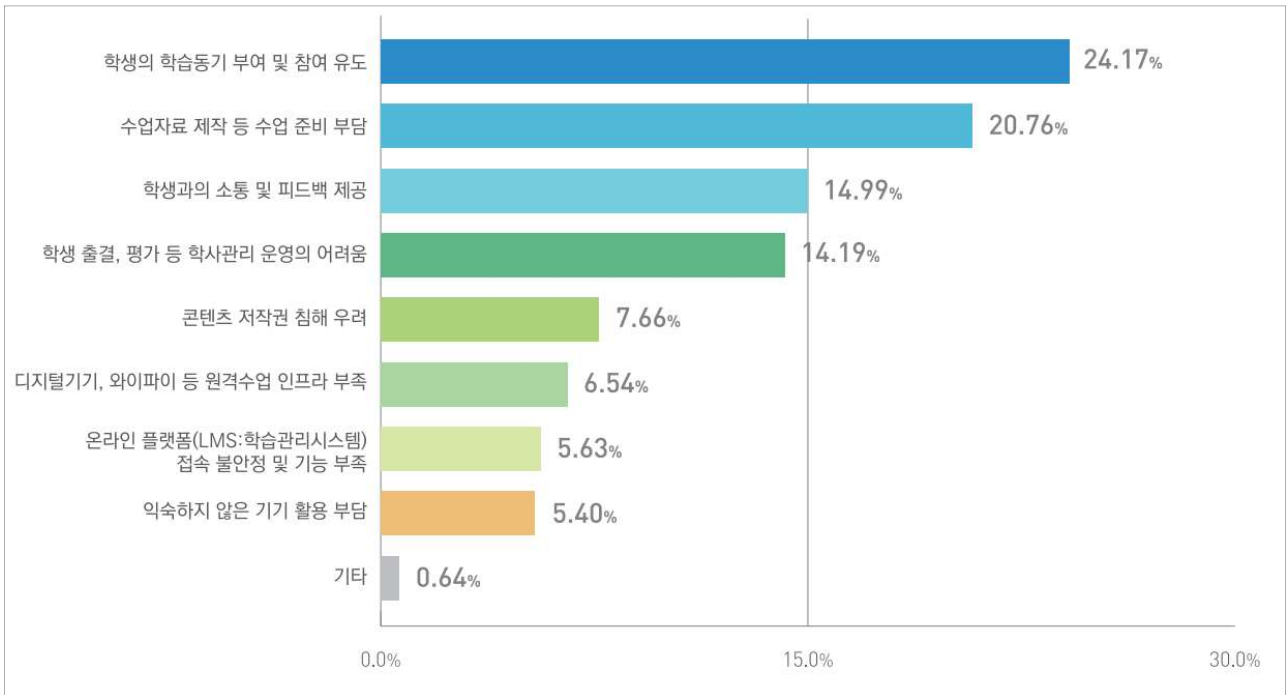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예, 개인용 컴퓨터, 학습관리시스템, 쌍방향 플랫폼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고,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교수자가 추가적인 보조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수자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과하는데, 교과별 과제의 증가로 학습자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대단위 학습자가 몰릴 경우, 서버나 인터넷망의 과부하로 인한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등이 학습자의 학습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온라인 학습의 초기에는 새로운 매체의 활용 등으로 학습자의 흥미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도가 감소하고 매체 활용의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상의 문제점이 학습자의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가 개인별 학습 성과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용상 · 신동광 2020:42~43. 참조).

COVID-19 이후 조성된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전면적 비대면 상황이나 매우 다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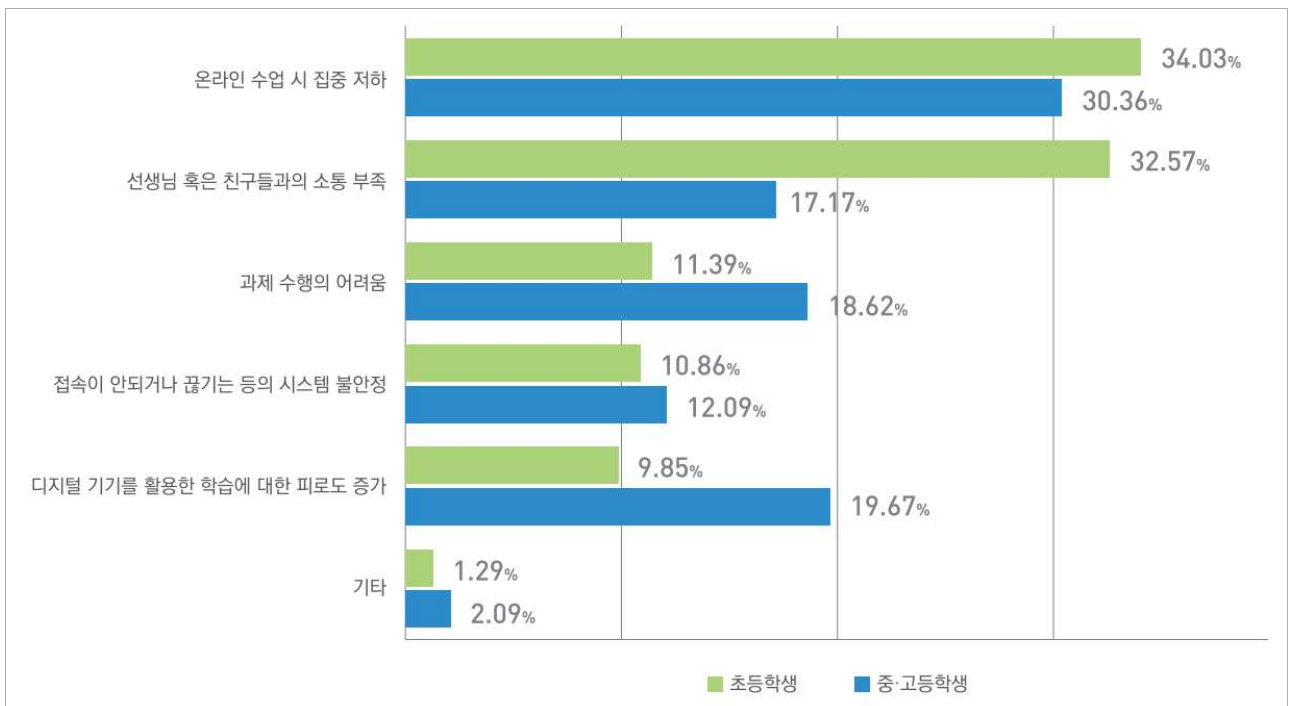
발전된 에듀테크 수업 도구,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다양화 등은 이전의 원격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4.1.2. 교사 실재감, 학습 실재감을 위한 능력 제고

<그림 6>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 교사(계보경 외 2020:12)



<그림 7>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 학생(계보경 외 2020:13)



계보경 외(2020:12~13)에서 보듯이, 온라인 교수-학습 시에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 집중의 어려움, 교사나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의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재감(實在感; presence)'의 부족임을 알게 한다.

실재감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실재감은 크게 교사 실재감, 학습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정서적 실재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상민·한승연 2020:131~146, 신을진 2020:21~104. 참조).

교사 실재감(teacher presence)은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이라고도 하는데, 학습자들이 교사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고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즉, 단지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교사의 수업 의도와 목표까지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학습 실재감(cognitive presence)은 인지적 실재감이라고도 하는데, 학생이 집중해서 학습에 참여하는 상태로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학습의 흐름을 잘 따라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된다고 느끼는 실재감이다.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한다고 느끼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정서적 실재감(emotional presence)은 온라인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 실재감이 충분한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된다.

결국, 온라인 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러한 실재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실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재감을 갖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방법 또한 오프라인 교실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재감에 대해 교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실재감을 갖는 수업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온라인 교실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거기에 탑재된 LMS의 구조와 각종 메뉴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교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수업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 수업 도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한다. 수업에 활용하는 에듀테크 수업 도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의 역량은 교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 및 대학, 초중등학교, 다문화센터 등의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사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교실: 온라인 교실의 활성화, 오프라인 교실과의 연동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통적인 교실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교실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교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수업의 진행 방식, 교사의 역할 등이 달라 지므로 교육의 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실의 경우, 교실의 형태, 기자재 구비 및 활용 여부 등이 수업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이라면, 온라인 교실은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 플랫폼의 기능이 어떠한지가 수업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하게 된다.

온라인 교실에서는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의 운영이 가능한데, 실시간 수업은 동시간에 온라인 수업 플랫폼(화상 수업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형태이고, 비실시간 수업은 VOD 동영상 콘텐츠와 교사의 사전 녹화물, 다양한 교육 자료 등으로 구성된 수업을 듣는 형태이다. 대개는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이러한 온라인 교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교실의 존재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교육이 중단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반 교재 및 교육 자료, 다양한 에듀테크 교수-학습 도구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교실과 온라인 교실의 연동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다양한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ICT 융합 기술이 적용된 교실로서 LM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메타버스(Metaverse) 한국어 교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³⁾

4.2.1.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 강화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무선 인터넷망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온라인 교육은 물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온라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지역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를 경량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이 열악한 지역의 학습자들이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플랫폼도 PC 기반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활동 등이 모두 가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한국어교육 현장의 온라인 플랫폼은 최소한의 필수적 기능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의 다국어 지원, 등록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간소화 등을 통해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간소화 등이다.

4.2.2. 온라인 플랫폼의 고도화

3)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메타버스의 유형에는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일상 기록(Lifeloggng)', '거울 세계(Mirror Worlds)', '가상 세계(Virtual Worlds)' 등이 있다(김상균 2020:22~32 참조).

개념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VOD 콘텐츠를 통한 비실시간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은 물론, 교재 제작 및 활용, 학사 관리 등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가리킨다. 즉, LMS와 연계된 수업 관리, 쉽고 간편한 교육 콘텐츠 도구 제작, 교사들의 행정 업무 처리(시간표 관리, 과제 등록, 출결 관리 등), 각종 자료(수업 자료, 제작된 교육 콘텐츠, VOD나 오디오 교재)를 보관, 등록할 수 있는 자료실, 기존에 출시된 에듀테크 수업 도구와 손쉽게 연동될 수 있는 링크 및 탑재 기능 등을 두루 갖춘 것을 말한다.⁴⁾ 이 온라인 플랫폼은 별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PC와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온라인 교실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각종 에듀테크 수업 도구와의 호환성(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한국어 플랫폼이 단순히 수업 콘텐츠를 탑재하고 일방향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 활동과 교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수업의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에듀테크 교수-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맺음말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확' 당겨온 '미래 교육'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면대면 방식의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갑자기 닥쳐온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예전의 교육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익숙지 않은 온라인 교육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초기의 혼란을 이내 극복하고 새롭고 다채로운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진화'를 이끌어냈다. 앞으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융합 교육과정이 개발, 시도될 것이며,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한국어교육의 질적 커다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려면 유능한 교사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에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기류에 힘입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류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학습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 브랜드를 한국어교육의 마중물로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프라인 세종학당의 지속적인 설치와 전문 교사 파견 등을 지속하며, 아울러, 상대적으로 시행 초기인 온라인 세종학당이 해외 한국어교육을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세종학당이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허브'로서 교사와 학습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마음껏 즐기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사의 자질 강화 노력이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

4) 온라인 플랫폼을 LMS와 동일시하여 여기에 각종 기능과 메뉴를 탑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LMS 자체가 둔중해져 접속이나 가동에서 장애를 겪게 될 수 있다.

력, 에듀테크 수업 도구 활용 능력 등 교사의 온라인 교육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온라인 교실의 활성화다. LMS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경량화·고도화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자들이 손쉽게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온라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다양한 에듀테크 수업 도구를 통해 제약 없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 입문 단계부터 고급 단계 및 그 이상의 단계까지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 교실과 연계하여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전수와 직접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문화 교육의 특성상 오프라인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한국 문화 수업을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감형·체험형 온라인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오프라인과 연동하여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계보경(2020), 언택트 시대, 그리고 우리 교육의 균형점, 행복한 교육(2020년 06월호), 세종: 교육부.
- 계보경·김혜숙·이용상·김상운·손정은·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김상균(2020), 메타버스, 화성: 플랜비디자인.
- 김지형(2020), 2020년 온라인 세종학당 시범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서울:세종학당재단.
- 김지형·노선주·이은숙·한지은(2021), 언택트(Un-tact) 시대의 한국어교육 현장 : 한글학교(제1회 글로벌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글로벌한국학연구원. pp.24~66.
- 세계한류학회(2021), 2020 세계 한류현황 분석,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서귀포:한국국제교류재단. pp.8~25.
- 신을진(2020), 온라인 수업, 교사 실재감이 답이다, 서울: 우리학교.
- 이상민·한승연(2020), 온라인 수업 전력, 파주: 종이와 나무.
- 이용상·신동광(2020),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 23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39~57.
- 장원일·정호중·김성혁(2020), 인터랙티브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강의, 서울: 박영STORY.
- 한국국제교류재단(2021), 2020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서귀포: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 해외한류실태조사_요약편(3), 서울: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지은(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재미 한글학교의 과제, 언택트 시대의 한국어교육 현장(제1회 글로벌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 전공·글로벌한국학연구원.
- KOTRA(2020), 2020 에듀테크 해외 유망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서울: KOTRA.